“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축하합니다”

3월 18일, 지정서 전달식
보물 지정 62년 만 국보로
도신 스님 “성지 위상 확립”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산시는 3월 18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국보 지정서 전달식 후 기념촬영 모습.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산시(시장 이완섭)는 3월 18일 보원사지 일원에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정범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 정경 스님(간월암 주지)을 비롯한 교구 스님들과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완섭 서산시장,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성일종 국회의원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대북 공연 ‘소리울림’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성악과 국악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이완섭 서산시장에게 지정서를 전달하며 국보 승격을 공식화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은 불교문화의 깊은 역사와 수행 전통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일”이라며 “이 유산을 지켜 온 모든 이들의 공덕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보원사지가 불교문화의 성지로서 위상을 더욱 확립하고, 참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통일신라와 고려를 잇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국보 승격은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보 승격은 18만 서산 시민의 염원과 노력이 모여 이룬 결실”이라며 “서산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산으로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정책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보원사지 오층석탑 국보 승격에 기여한 공로로 정광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은우 부산시립박물관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광용 명예교수는 문화유산 보존과학 연구를 통해 석탑의 구조와 제작 기법을 규명해 학술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은우 관장은 불교미술과 석조조각 연구를 바탕으로 조형성과 시대적 가치를 밝혀 국보 지정의 당위성 확립에 기여했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의 조영 기법과 양식을 고려할 때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의 편년(編年) 기준이 되는 석탑이다. 통일신라와 고려를 잇는 조형성과 조각 기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보물 지정 62년 만에 국보로 승격됐다.

보원사지 일원에서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발굴이 진행돼 지금까지 3천7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고, 이 가운데 철조여래좌상을 비롯한 30여 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또 보원사 경내에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유물의 환지·이전과 함께 체계적인 보존과 전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 육조정맥선원 ‘3년 결사안거’ 정진

작년 12월 7일 입재, 3년 정진
출·재가자 40여 명 방부 들어
전법 선사 지도로 수행자 양성


해남 육조정맥선원은 지난해 12월 7일 ‘3년 결사안거’에 입재해 정진 중이다. 안거에는 40여 명의 출·재가자가 참여했다.

해남 육조정맥선원(조실 농선 대원 전법 선사)이 ‘3년 결사안거’에 입재해 가열찬 수행정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사는 지난해 12월 7일 입재해 2028년 12월 7일 회향을 목표로 진행되는 장기 수행이다. 현재 스님과 재가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의 수행자가 정진하고 있으며, 일부 재가 수행자들은 생업으로 인해 단기 정진을 이어 가고 있다. 취침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에 참선과 점검을 통해 깨달음을 향한 수행을 계속하고 있다.

대원 전법 선사는 이번 3년 결사 수행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는 수행 도량이 드문 현실에서, 참된 수행자를 길러 내기 위해 3년 결사를 시작했다”며 “3년 동안 죽기를 각오하고 정진하면 마음을 바로 보는 수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의 근본 목적은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고 죽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조정맥선원은 해남 도량을 중심으로 경기와 부산, 경북, 광주 등에 7개의 선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선원에서는 참선과 법문을 통해 수행 전통을 이어 가고 있다.

대원 전법 선사는 “수행은 무엇보다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수행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육조정맥선원은 대원 선사의 법문과 수행 사상을 정리한 책을 문젠미디어를 통해 출간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번역해 전파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수행 가르침을 현대 기술과 접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활동도 이어 가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

3월 17일, 누각서 전달식
본래 누각명도 되찾아



안동 봉정사의 누각 ‘만세루’가 본래 이름인 ‘덕휘루’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에 지정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안동시는 3월 17일 봉정사(주지 두현 스님)에서 ‘봉정사 덕휘루 보물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전통 사찰 건축의 가치를 재확인했다.〈사진〉 지난달 보물로 지정된 덕휘루는 봉정사를 대표하는 누각으로, 그간 만세루로 불렸으나 최근 조사에서 1680년 건립 당시 덕휘루로 명명됐음이 확인됐다.

덕휘루라는 이름은 중국 한나라 시인 가의의 시구에서 유래한 것으로 ‘봉황이 높은 곳을 날다가 빛나는 덕을 보고 내려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봉황이 머문 절’이라는 의미의 봉정사 사명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명칭이다.

1818년 중건을 거치며 오랜 세월 덕휘루로 불렸으나 20세기 초 만세루라는 편액이 걸린 이후 만세루로 알려져 왔다. 2001년 경상북도 유형유산으로 지정됐고, 이번에 덕휘루라는 이름으로 보물로 승격되며 건물에 담긴 본래의 뜻과 역사성이 재조명됐다.

주지 두현 스님은 “천년 역사의 봉정사가 덕휘루의 보물 승격으로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다시 조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봉정사의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봉정사 회주 호성 스님과 주지 두현 스님,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을 비롯해 권기창 안동시장, 천성용 제16교구 신도회장, 안윤호 봉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안동 봉정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7개 사찰 중 하나다.

안동 봉정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쪽방촌 어르신 위한 자비 곳간 열렸다”

복암사, ‘온드림곳간’ 개소식
식료품 등 나눔 펜트리 운영



광주 동구 대인동 쪽방 거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나눔 공간 ‘온(溫)드림(Dream) 곳간’이 문을 열었다.

광주 동구청(청장 임택)은 3월 13일 쪽빛상담소에서 ‘온드림 곳간’ 개소식을 개최했다.〈사진〉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는 오래된 여관·여인숙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쪽방 거주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번에 문을 연 ‘온드림곳간’은 쪽방 거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나눔 펜트리(Pantry) 사업이다. 라면과 햇반, 화장지, 세제 등 생활 필수품을 비치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 사업은 조계종 복암사와 자비신행회의 후원으로 추진됐다. 두 단체는 매월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 거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온드림곳간’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현재 200여 명의 쪽방 거주민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후원자로 나선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늘진 곳의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 따뜻한 응원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인동 여관·여인숙 거리에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 온드림곳간이 이곳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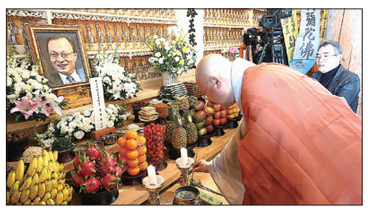
이어 “십시일반의 나눔 정신을 담은 이 공간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성 스님과 자비신행회 등 많은 분들의 나눔이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종 광제사, 이해찬 전 총리 49재

3월 14일, 대웅전서 봉행



세종 광제사(주지 탄대 스님)가 3월 14일 대웅전에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의 49재를 봉행하고 고인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사진〉

49재에는 주지 탄대 스님과 효림 스님(경원사 주지), 원행 스님(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장), 선중 스님(보현정사 주지)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해찬 전 총리와 인연을 이어 왔던 효림 스님은 추모사에서 “총리를 지낸 경력을 넘어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한, 나라의 큰 어른이라 부를 만한 분”이라며 “막힌 강을 열어 흐르게 하고 역사의 큰 줄기를 바로 세워 밝은 길을 열었다”고 추모했다.

탄대 스님은 인사말에서 “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극락왕생과 상품상생을 발원한다”며 “고인이 추구했던 민주주의의 큰 뜻이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로 꽃피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호 전 세종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49재에 귀한 걸음을 해 주신 모든 분께 유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추모와 위로 덕분에 가족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3주년 특별법회

3월 14일, 문수선원서 봉행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3월 14일 문수선원에서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 3주년 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수행원장 자현 스님, 기도신행실장 혜묵 스님 등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불자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출범 3주년을 맞이한 금강경봉찬기도회의 성취를 함께 축하한다”며 “3년의 시간은 이제 막 보리의 뿌리를 내린 단계로, 열매를 맺기 위한 기초의 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금강경봉찬기도회를 세계불교의 큰 보리나무로 성장시켜 많은 이들에게 감로를 베풀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월정사 금강경봉찬기도회는 지난 3년간 꾸준한 신행 확산을 통해 현재 누적 접수 1만5천 가구, 기본 유지세대 8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철야정진기도에는 평균 2000여 명의 불자가 동참하고 있으며, 불교 발전과 학인 지원을 위한 후원 보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직지사, 정혜 대선사 79주기 다례재

3월 18일, 경내 천불전서



한국불교 수행 가풍을 이끌며 교화행을 펼쳤던 탄옹당 정혜 대선사의 열반 79주기 추모 다례재가 3월 18일 김천 직지사 천불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다례재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헌향·헌다·헌화로 시작됐으며, 직지사 문장 혜창 대종사와 회주 법성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주지 장명 스님을 비롯한 문중 스님들이 참석했다.

주지 장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엄혹한 일제강점기에도 한국불교의 승풍이 땅에 떨어지는 시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과 교를 겸수하며 수행자의 표상이 되셨다”며 “선대의 업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후손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 대선사는 근대 한국불교 대강백 제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행하며 후학을 지도했다.

특히 불교를 주제로 한 연극을 선보이는 등 시대를 앞선 교화행으로 현대 포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천 직지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공주 동혈사, 진신사리 봉안석탑 조성

3월 15일, 봉안식 봉행



공주 동혈사(주지 종성 스님)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9층석탑이 세워졌다. 3월 15일 동혈사에서 열린 9층석탑 봉안식에는 주지 종성 스님과 용담 스님(부여 가탑사)을 비롯해 이계숙 신도회장, 김영찬 총무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주지 종성 스님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는 것은 동혈사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사리를 중심으로 수행과 신앙이 이어지고 많은 불자가 마음을 모으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성된 9층석탑 내부에는 부처님 진신사리 4과와 다라니 사경이 봉안돼, 동혈사의 수행과 신앙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하게 됐다. 석탑 옆에는 소원을 성취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여의보주 형상의 석조 조형물도 함께 조성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